

KT '5G 단독모드' 상용화... "폰 오래 쓰고 반응속도 ↑"



갤럭시 S20 등 3개 단말기서 사용 경쟁사 "5G속도 1.0Gbps 느려질것" SKT·LG U+, 도입에 신중 기해

국내 최초의 5G 단독모드(SA) 상용화가 시작됐다.

KT는 15일 5G 네트워크만 사용하는 SA 상용 서비스를 발표했다. 하지만 경쟁사들은 5G SA 방식은 기존의 5G와 LTE 혼합방식인 NSA(비단독모드)에 비해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는 데도 "KT가 무리하게 전환에 나서서"라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KT가 발빠르게 5G SA 상용화에 나선 것은 국내 최초로 이동사중 유일하게 상용화를 시작함으로써 무선 분야의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KT 직원이 KT 직원이 갤럭시S20 단말에서 5G SA 적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보여주고 있다. /KT

◆KT, 삼성 갤럭시 3종 단말기서 5G SA 상용 서비스 개시

KT는 5G SA 상용서비스를 우선 삼성 갤럭시S20, S20+, S20 울트라 3종의 단말에서 제공한다. 또 제조사와 협력해 적용 단말기를 확대할 계획이다. SA 전환을 원할 경우 단말 메뉴에서 '설정-소프트웨어 업데이트-다운로드 및 설치' 후 1회 더 재부팅하면 이용 가능하다.

SA에서는 관련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올해 연말부터 더 정교한 재난문자 서비스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LTE 기지국 기반 재난문자는 불필요한 인근 지역 정보까지 수신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SA에서는 위치한 지역의 재난문자만 제공해 이용자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2019년 NSA 방식 5G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SA로 진화를 염두에

두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 SA 상용망 제공을 위해 기술 개발과 필드 검증을 지속했다. 올해 1월부터 KT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국 5G 상용망에서 SA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고객 체감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5G 개시 후 2년 3개월여 만에 상용화되는 SA 서비스는 스마트폰 이용자 뿐 아니라 산업에도 5G가 적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초기 5G 속도 과대포장' 재연 우려도

KT는 SA 방식이 NSA에 비해 더 오래 배터리를 사용하고, 빠른 반응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삼성 갤럭시S20+ 단말로 SA와 NSA의 배터리 사용시간을 비교 시험한 결과, SA(13시간 38분)는 NSA(12시간 32분)보다 최대 1시간 6분(8.8%)을 더 오래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만 따져보면 KT의 5G 서비스가 NSA 방식에서 최대

속도가 다운로드 기준 2.5Gbps까지 나오지만, SA 방식으로는 최대 1.5Gbps까지만 나온다는 문제가 생긴다.

한 업계 관계자는 "NSA 서비스에서 SKT가 최대 속도가 2.75Gbps가 나오고 LG유플러스도 2.1Gbps가 나오는데, KT가 SA 방식으로 전환해 1.5Gbps 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5G 상용화 초기 이동사들은 속도를 과대 포장해 발표했지만, 결국 성능이 기대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아직까지도 비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KT는 SA 방식으로 전환해도 속도는 전혀 저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KT 관계자는 "5G와 LTE를 혼합해 사용했을 때 이론적으로 최대 속도가 2.5Gbps까지 나온다는 말이지, KT는 처음부터 '5G 퍼스트 전략'을 사용해 트래픽을 5G로만 보내 1.5Gbps를 유지해왔다"며 "SA 방식에서도 이 속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LG유플러스, H KDDI와 5G·6G 협력 강화

국제 통신사업자간 협업체계 구축 유무선 사업 혁신 아이디어 등 공유

LG유플러스가 일본 통신사업자인 KDDI와 5G·6G 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KDDI와 5G 신사업 발굴 및 6G 공동 대응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5G 신사업 발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제 통신사업자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네트워크 기술 및 솔루션은 물론, 유무선 사업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사업화를 위해 힘을 합칠 계획이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논의가 시작된 '6G'에 대해서도 협력한다. 6G는 5G 이후 상용화될 예정인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로, 세계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글로벌 사업자들의 기술개발 및 표준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LG유플러스와 KDDI는 6G 기술 개발은 물론, 향후 국제 표준 제정 등에도 공동으로 대응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MOU로 KDDI와 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양사는 다른 국가의 통신사업자와의 협업 관계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KDDI는 매출액 기준 일본 최대 규

모의 통신사업자다. 2020년 기준 연간 매출액은 약 494억 달러(약 56조원)에 이르며, 6000만명 이상 이동통신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2015년부터 6년간 ▲통신기기 공동 조달 ▲XR(혼합현실) ▲스마트 드론 개발 ▲교환근무 등 협업을 진행해왔다.

LG유플러스 박종욱 최고 전략책임자(CSO)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KDDI와 5G 서비스를 비롯해 신사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게 됐다"며 "나아가 6G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O-RAN 등 분야에서 글로벌 혁신 기술을 함께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구글코리아, 국내 머신러닝 개발자 양성

양성·채용 연계 '머신러닝 부트캠프'

구글코리아가 국내 머신러닝(인간의 학습 능력을 컴퓨터에서 실현하는 기술) 개발자를 양성한다.

구글코리아는 국내 머신러닝 개발자 양성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 '머신러닝 부트캠프'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머신러닝 부트캠프는 머신러닝 개발자의 꿈을 꾸는 참가자에게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머신러닝 개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이 인력 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진행된 프로그램에는 약 3000명의 개발자가 지원했으며 이중 코세라에서 딥러닝(사물이나 데이터를 군집화하거나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 특화과정을 수료한 150여 명의 참가자는 머신러닝 자격증을 취득해 현재

다양한 산업군에서 머신러닝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다.

머신러닝 부트캠프는 오는 8월 둘째 주부터 총 4개월 간 딥러닝의 바이블로 불리는 앤드류 응 교수의 딥러닝 스페셜라이제이션 교육 코스를 수료하고, 구글의 텐서플로(구글에서 개발한 기계 학습 엔진)와 GCP(구글 클라우드 인터커넥트) 데이터 엔지니어, 전문 머신러닝 엔지니어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 커리어 발전에 기본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의 만남, 프로젝트 실습 기회와 이력서 작성 및 커리어 성장을 위한 세션을 강화하고 지난해보다 많은 기업과 협력해 채용 정보 및 기회를 늘렸다.

모든 과정을 수료한 참가자들에게는 파트너사의 머신러닝 개발자로 지원할 기회도 제공된다. /강준혁 수습기자 junhyuk@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T 퀵' 전국 확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퀵'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달 30일 선보인 '카카오 T 퀵'은 플랫폼 기반으로 소화물(20kg 이하 중량, 가로·세로·높이 합 140cm 이하 크기) 이동을 돕는 서비스이다.

카카오 T 앱 내 '퀵/택배' 메뉴에서 물품정보와 출·도착지를 입력하고 배송을 접수 요청하면 '카카오 T 픽커' 기사가 방문해 원하는 목적지로 물품을 배송한다.

당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선보였으나 출시 2주 만에 전국 어디에서나 퀵서비스 주문 접수가 가능해졌다.

기사 수도 10만명을 돌파해 기사들의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복 순화기자 sunbok@



서울 서초구 광동제약 사옥에서 열린 'AI 생수 간편주문 서비스' 협약식에서 광동제약 구준모 생수영업부부장(왼쪽)과 KT 최준기 AI·빅데이터 사업본부장 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생수 구매해줘" 말 한마디로 주문 OK

KT-광동제약 '생수 간편주문 서비스'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해 '말 한마디'로 생수를 구매하고 배송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고객들의 소비 패턴을 예측해 생수 구매시점도 미리 음성으로 알려준다.

KT가 광동제약과 손잡고 AI 스피커 기가지니를 통해 제주삼다수를 구매할 수 있는 간편 주문 서비스를 론칭한다.

KT는 서울 서초구 광동제약 사옥에서 광동제약과 'AI 생수 간편주문 서비스' 론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업협력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도 참여했다.

AI 생수 간편 주문 서비스는 KT의 음성인식, 개인화 AI 기술, 주소 정보와 광동제약의 유통력을 활용해 기가지니 음성명령만으로 간편히 제주 삼다수를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향후 KT는 음성인식·개인화 AI 기술과 단말설치 주소 등을 토대로 생수 주문을 간편화하고 주문내역을 광동제약측에 제공한다.

/채윤정 AI전문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LG CNS, 상장 준비 착수... TF 출범

국내 3대 SI(시스템통합) 기업 중 하나인 LG CNS가 국내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 IT 업계 관계자들은 LG CNS가 2023년에 상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 CNS측은 15일 "현재 TF(태스크 포스팀)를 결성해서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LG CNS는 최근 MSP(관리형 서비스 제공사)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으로

실적이 상승하자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LG CNS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3조 3605억원, 영업이익은 24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15.6%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결기준 매출액이 7545억원, 영업이익은 544억원이었다.

/강준혁 수습기자